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아파트 한화건설 '꿈에그린'  
 '2010년 건설업 TOP 10'  
 도약의 해로 삼는다



88올림픽 고속도로, 미시령 터널 등 국가 균형발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온 한화건설이 아파트 부문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꿈에그린'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는 한화건설의 경쟁력을 살펴본다. 에디터 김소진

지난 5월 말 천안 에스원 운동장에 한화건설 전 임직원 1000여 명이 모였다. 매년 한 차례 열리는 한마음 체육대회의 장이다. 한 자리에서 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목청껏 외쳤다. "2010 TOP 10! 2010 TOP 10!" 이들이 외치는 우렁찬 함성 소리는 바로 한화건설의 2010년 목표.

현재 건설업 도급 순위 15위인 한화건설은 2004년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작년 2조 887억 원 수주를 달성함으로써 대형 건설사의 입지를 공고히 다졌다. 한화건설은 그동안 88올림픽 고속도로, 미시령 터널 등 국가의 균형적인 개발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수많은 토목·SOC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그 풍부한 경험과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최근 제주도립미술관 설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건축 부문 BTL(민간자본유치사업) 사업에도 첫 시동을 걸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우체국, 경희대 의료원, 서울역 민자역사등 첨단 시스템을 도입한 초고층 사무용 빌딩에서 병원, 스포츠·레저 시설, 콘도미니엄, 학교 및 역사, 백화점 등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기능성과 예술성이 조화를 이룬 행복 공간의 창조에 앞장서왔다.

또한 한화건설은 석유화학, 에너지 등 대단위 플랜트 공정의 설계부터 시공·운전·관리를 통해 쌓아온 플랜트 분야의 풍부한 기술력과 최고의 인력을 자랑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1 부산 메가센터 한화꿈에그린, 2 화성 동탄의 한화꿈에그린,  
3 신길뉴타운 꿈에그린의 중앙 광장, 4 영창동 한화꿈에그린



**꿈에그린 브랜드 TOP 5 진입** 한화건설은 '꿈에그린' 브랜드로 주택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01년 론칭한 꿈에그린은 전국에 걸쳐 3만여 세대를 공급하며 친환경, 고품격 아파트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환경주거문화대상 연속 8회, 매경 살기좋은아파트, 그린주거문화대상 5회 등 각종 수상 경력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작년 12월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화꿈에그린' 이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6위에 랭크돼 브랜드 TOP 5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부산·대전·서울의 재개발 사업에 진입함으로써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는 꿈에그린 브랜드 파워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건설이 인천 논현지구에 72만 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는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서는 최초의 매머드급 도시 개발 프로젝트로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화꿈에그린월드의 '인천에코메트로'라 명명한 이 사업은 전체 부지 가운데 50% 이상이 녹지로 조성되는 등 국내 최고의 생태 환경 주거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며, 이곳에는 꿈에그린 아파트 8000여 세대 등 총 1만 20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화건설은 성공적인 개발 및 분양을 통해 꿈에그린 브랜드 파워의 향상은 물론 확보된 수주 물량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는 해외 시장 진출의 원년** 한화건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업의 다각화는 물론 해외 사업 진출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우선 그 대상은 주택 개발과 플랜트 사업이라고 밝혔다. 주택 개발 사업은 이미 시카고와 북미 지역에서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현재 시카고와 애리조나 지역에서 2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향후 미국에서 주택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경영의 폭과 깊이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석유화학 및 발전 플랜트 사업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 중이다. 특히 플랜트의 경우 지난 4월 사우디에 법인을 설립했으며 아울러 동남 아시아 시장 진입도 검토 중이다.

앞으로는 디벨로퍼 방식의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나갈 계획이다. 2010년 건설업 TOP 10, 나아가 글로벌 디벨로퍼(Global Developer)로 성장하는 한화건설의 모습을 꿈꾸고 싶다. ☺

우리의 꿈은 당신의 꿈을 짓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일터, 당신의 휴식처, 당신의 길...  
당신을 둘러싼 모든 공간이 당신을 꿈꾸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의 꿈, 그 뒤에...  
한화건설이 있습니다.